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3일 어린이들이 강진군 성전면 상월마을앞 보리밭 길을 걷고 있다.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는 '입춘한파' 속에서도 남도 들녘은 푸릇푸릇한 보리잎으로 봄이 머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논두렁 사이로 봄은 오고 …

'설 맞이 이웃사랑'

수공, 저소득층 연탄 전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수공 전남 서남권관리단은 3일 장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과 함께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의 무의탁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직원들은 저소득 가정 25세대에 7천4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 도왔다.

서남권관리단은 매달 급여에서 갹출해 모금한 '물사랑 나눔단 기금'으로 연탄구입 재원을 마련했다.

김승효 전남 서남권관리단장은 "계속되는 한파와 비싼 연료비로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사랑의 연탄'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양 '바닷물 범람' 원인싸고 논란

市 "강풍·너울성 파도 탓" 시민단체 "광양만 매립 탓"

광양시가 지난 1일 바닷물 범람사고 원인에 대해 '강풍과 너울성파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국립 해양조사원과 광양시에 따르면 사고 당시인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광양만의 실측 만조위가 예보 만조위 보다 35㎝ 높았으며 경남 통영 46㎝, 마산 33㎝, 사천 30㎝, 목포 20㎝, 완도 39㎝ 등 전국적으로 30~50㎝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가 일어 발생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비춰볼 때 광양시 일부 지역이 갑자기 해수가 높아진 것과 범람지역의 도로가 30~80㎝ 정도 침하가 발생된 것도 범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는 장기적인 후속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원인 분석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광양만 매립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등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홍수시나 만조시 범람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광양 시민연대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은 세계적 추세이나 이번 범람을 계기로 향후 도시계획시 또는 도로개설시 이를 감안한 설계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된다"면서 "향후 폭우나 해수 만조시 또 범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45·중동)씨는 "기본적으로 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고, 광양만권과 섬진강 일대의 각종 매립 등도 범람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대비한 항구적인 계획과 대책수립에 광양시와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50여분간 광양만 인접지역인 광양시 광영동 746번지 일부 해안도로 50여m와 중동 홈플러스 입구 도로 30m에 바닷물이 범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평준화 지역 고교 선호도 최대 10배

정원 채운 학교 27곳 중 13곳 불과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전남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간 선호도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평준화'지역이더라도 특정학교 '선호'나 '기피'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배정 결과 제1지망 지원 비율이 목포는 최고 203%, 최저 44%로 159% 포인트, 순천은 최고 161%, 최저 38%로 123% 포인트차 였다. 특히 여수는 최고 147%, 최저 13%로 선호도 격차(137% 포인트)가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지망 선호도는 목포(185%)가 18% 포인트, 순천(149%)이 12% 포인트 늘었으며 여수(147%)는 같았다.

또한 최악의 기피학교로 분류된 고교의 지원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목포와 여수가 각각 5%와 3% 포인트 떨어졌다. 이른바 좋은 학교에는 더 몰리고 기피학교에는 학생 지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율이 정원의 100%를 넘긴 학교는 전체 27곳 가운데 13곳이었으며, 지원율 50% 이하 학교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 2곳, 여수가 1곳이었다.

도 교육청은 목포, 순천, 여수지역 예비 고교생 8천557명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으며, 1지망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면 컴퓨터 추첨을 하고 미달이면 그대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1지망을 희망한 학생에게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배정한 비율은 83%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내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지원과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며 "특정학교의 쏠림현상 예방 등 학교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목포, 순천, 여수 등 3곳에서 일반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 병영면 공공 하수처리장 오는 2012년 120억 들여 완공

하루 400t 처리… 내달 착공

강진군 병영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 하수처리장이 오는 2012년 준공된다.

강진군은 올해 국비 등 12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청과 전남도 등 관련 기관의 기술심의 등을 거쳐 1일 400t 용량의 처리장을 다음달 착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영면은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인근 금강천으로 방류, 수질오염이 가중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병영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해 지난해 군비 3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과 투융자 심사 등을 마쳤으나 본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미뤄져 왔다.

최형택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처리장이 준공되면 지역민의 깨끗한 주거환경개선과 관광객 편익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영지역은 조선시대 제주와 전라남·북도를 관할하는 병마절도사가 위치한 곳으로 1998년부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멜기념관, 홍교,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와 은행나무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파행' 순천 인애원 정상화 촉구

노조, 관선이사 파견 등 市에 행정조치 요구

국고보조금 횡령 등 시설운영 비리와 시설폐지, 집단해고로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애원 노조는 지난 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의 부당한 '희망하우스' 폐지와 집단해고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관선이사 파견 등의 사태해결을 위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인애원 경영진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자를 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애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유기 농업인' 양성 교육 강화

道농기원 올 정보화교육 등 2천580명 대상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유기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 양성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농업인 교육은 9월 초까지 ▲품목별 영농기술교육(18과정 800명) ▲녹색생활 귀농인교육(4과정 12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10 과정 300명) ▲농업기계교육(9과정 1천246명) ▲전남생명농업대학과 마이스터대학(5과정 114명) 등 총 6분야에 46과정 2천5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쌀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계농지 산채·약용작물 재배기술 과정과 '결혼여성 이민자 교육' 과정이 신설됐다.

특히 올해는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무농약' 중심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교육한다.

문의(061-330-2724)

/송기동기자 song@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산공인중개사
핸 010-7154-6996
☎ 062-972-8004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융자 6억
▶상가매매(첨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권장업종 : 의류, 편의점, 안경, 푸드
▶창고및 공장용지
• 서구 벽진동 184평
- 평당 140만
• 서구 덕흥동 900평
- 평당 85만
• 서구 우산동 550평
- 평당 65만
• 광산구 수완동 900평
-평당 100만
◉ 구 함 ◉
• 골프 연습장 부지 -광주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각,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핸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팬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150평 건물 120평
: 매가 6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0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팬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입박으로 팬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위 치◉
화순읍 전대병원민년산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보로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만연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 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톤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만성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영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정성들여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회직자 최적합)
급 매매가 : 6억 8천만원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자하 1층, 지상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문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야전기
* 조경 : 잔디, 소나무
* 건축 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리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흙황토 벽돌, 흙황토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송
* 2층 방가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기목 시공)
◉주인직거래◉
꼭하실분만전화요망
☎011-634-4114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 서구청옆 광주제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